

# 나주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송 서비스

### 내년 상반기 판매센터 구축 온라인 신청·납부 후 직접 배송 편의점 등 570곳 편의성 향상

나주시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체계를 전면 수정한다. 시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와 직접 배송 시스템 등 편의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내년 상반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센터를 구축, 판매점의 구매·운반 편의를 위한 '온라인 신청 및 직배송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기존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직접 판매하던 방식에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판매점주가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시에서 판매점까지 '직접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방식 변화는 지난 19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내 마트·편의점 등 570여개소 봉투 판매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에는 판매점주가 행정복지센터 업무시간에 맞춰 직접 방문해 구매·수령한 후 판매점까지 운반해야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무엇보다 여성, 고령 점주의 경우 대량의 봉투 구매 시 운반에 어려움이 컸었으나 내년 배송 서비스 시행을 통해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내년 상반기 온라인 신청·배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용 웹(web) 사이트를 개발하고 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행정복지센터 업무시간 외에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종량제 봉투 수량을 주문, 대금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판매점으로 배송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 재고 수량 파악도 기존 번거로운 수기 대장에서 전산 시스템 입력 방식으로 전환돼 주문·판매·재고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내년부터 종량제봉투 구매를 위해 점주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온라인을 통해 신청, 납부, 수령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봉투 공급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정책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대민행정을 추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bson@kwangju.co.kr

# 담양군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일손부족 농가 시름 덜어 29명 배정...연내 30명 추가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담양군에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으로 농가 시름을 덜게 됐다.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 계절근로자 29명이 입국해 농가에 배정됐으며 연말까지 30여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배정될 예정이다. 담양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7월 필리핀 2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했으며 결혼이민자가 주축 초청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 지역 농가와 연계하는 등 딸기 수확기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온 29명은 사전교육, PCR검사 등의 절차를 마치고 관내 농가에 곧바로 투입돼 약 5개월간 농·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결혼이민자 친척 계절근로자도 30명이 입



담양군이 지난 28일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졌다. <담양군 제공>

국해 농가 일손을 돕고 있으며, 연말까지 30여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담양군은 지난 10월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인한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MOU 체결과 결

혼이민자 친척 초청을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확대, 농촌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에는 외국인계절근로자 MOU 지자체인 나태비나드 시장 등 관계자를 초청해 두 지자체간의 우호 협약 및 근로자들과 만남의 장을 가질 예정이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 담양군 연말 이웃돕기 온정 줄이어

### 소금 300포·청국장1250개 김치과의원, 1000만원 전달

담양군에 쌀쌀한 날씨 속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후원상품은 ▲남도식품(대표 박희출) 소금 10kg 300포(510만원 상당) ▲(주)고려전통식품(대표 고훈국) 청국장 1250개(500만원 상당) ▲담양군육외광업협회(회장 최중수) 100만원 등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담양군 창평면에 위치한 김치과의원(원장 임성익)은 지난해에 이어 창평면사무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임성익 원장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항상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사회적 가치실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매년 잊지 않고 기탁해 주신 분



창평 김치과의원 임성익(오른쪽) 원장이 창평면사무소에 저소득층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장흥군, 내년 예산 5140억원 편성

### 올해보다 210억원 증액

장흥군이 '군민이 행복한 장흥만들기' 민선8기 내년 예산으로 5140억원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 장흥군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 4930억원보다 210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4996억원(전년대비 222억원 증가)이며 특별회계는 144억원(전년대비 12억원 감액)이다. 군은 내년 예산에 도비보조금(전년대비 24% 증가)이 늘어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및 사회복지 분야와 도로개설 등 주민생활 분야에 바탕을 둔채공모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적극 활용 유연하게 운영하는 재정 방향을 세웠다. 일반회계 4996억원은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448억원(29%), 사회복지·보건이 1237억원(25%), 환경분야 516억원(10%), 지역개발에 310억원(5.2%), 문화·관광분야에 262억원(5%)으로 편성했다. 내년 핵심사업으로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건립(71억원) ▲어촌뉴딜사업(70억원) ▲진군류 바이오헬스 상용화사업(42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46억원) ▲섬소 경관복원사업(38억원) 분야에 집중투자한다. 한편, 정부의 건축재정운용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전년에 156억원에서 무려 12억원(7.7%)인 줄어든 144억원에 그쳐 재정 건전성차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2기 수료생 11명 배출

### 9개월간 이론·실습 교육

함평군이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2기 수료생을 배출했다.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2기 수료식이 수료생과 가족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는 예비 농업인의 귀농 실행단계에서의 두려움 해소를 돕고, 침체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지난 2021년 문을 열었다. 이날 수료식에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귀농·귀촌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11명의 교육생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센터는 지난 1월 2기 입교자를 모집, 총 10세대 19명을 선발해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영농기술 이론 및 실습 교육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에서 열린 2기 수료식에서 수료생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등을 실시했다. 교육은 총 40회로 운영됐으며 각종 영농 이론 교육을 비롯한 선도농가 현장방문 등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실무 위주 교육으로 구성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료식을 마친 2기 교육생 가운데 6세대 총 8명이 함평 정착을 희망했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나주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12만 시민 의견 경청한다

나주시가 민선8기 수요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대전환'을 위해 12만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13일까지 시청 누리집을 통해 '민선 8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시민 의견 제안은 '버스노선 신설·변경', '운행 시간 조정', '버스 승강장 설치·위치 변경', '대중교통 정보제공', '기타 불편사항' 등 5개 분야로 구분해 받는다. 제안 방법은 시청 누리집 첫 화면 팝업창을 클릭하거나 '참여민원-시민참여-시민의견수렴' 순으로 접속해 실명인증을 거쳐 글을 게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분야별 검토·분석을 통해 노선 개편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나주시는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 향상과 효율성에 중점을 둔 대대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착수했다. 개편안은 큰 틀에서 '시내버스-마을버스, 시내버스-마을택시'를 연결하는 노선 체계 구축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화순야구장 전지훈련지 각광...2000여명 찾아

화순군이 야구 전지훈련지로 각광 받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화순초등학교와 화순야구장에서 초등 야구팀 주계전지훈련과 화순고인돌배 전국초등 야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계전지훈련으로 대전, 천안, 평택, 청주 등 전국 8개 초등학교 야구팀의 선수, 관계자 등 250여명이 화순군을 찾았다. 군의 적극적인 하계-주계 전지훈련 유치 노력으

로 올해에만 2000여 명의 선수, 관계자가 화순야구장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지난 해 화순군과 전라남도교육청이 53억원 투자해 조성한 화순야구장은 공인 규격(1만8000㎡)의 야구 전문 구장으로 야간 훈련이 가능하고 최고의 훈련 시설이 마련된 점과 훈련장 무료 이용, 심판비 일부 지원 등 훈련 활동의 적극 지원이 인기의 비결이라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화순고인돌배 전국초등 야구대회 참가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장성군, 광주권 소비자 '로컬푸드 팸투어'

### 사과 수확·인절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호응

장성군이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 팸투어를 진행했다.<사진> 광산구 국공립어린이집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호평을 받았다. 장성에서 기른 사과를 수확하거나 직접 인절미를 만들어 먹는 등 '오감만족' 체험이 이어졌다. 팸투어 마지막 순서에는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에서 직접 장을 보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 참가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로컬푸드를 체험하며 '좋은 먹거리'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으며 아울러 앞으로 직매장을 더욱 자주 찾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성군이 운영 중인 로컬푸드직매장은 총 두 곳이다. 남면에 이어 올해 6월 광주 북구 오봉동에 새 직매장을 열었는데, 개점 150여 일 만에 총매출액 30억원을 넘기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팸투어는 장성군과 광주 광산구의 도농상생을 향한 '함께 걷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강진군 '웰니스 테마파크 사업' 속도 낸다

### 대구면 용운리 호텔·골프장 인허가 절차 거쳐 2024년 착공

강진군 '강진 웰니스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대구면 용운리 일대 20만평 규모의 5성급 호텔과 골프장(9홀), 트레킹코스, 테라피 숲길 등을 조성한다. 강진군과 (주)동승은 9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4일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업부지 및 골프장 코스 설계를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또 인근 고려정자요지 등 문화재보호구역에 제외 문화재 발굴로 인한 사업 장기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최근 관광 트렌드로 자리잡은 소규모·고급화 전략을 통해 매력적인 관광단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수년간 지연된 대구면 용운리 일대 투자유치를 통해 강진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도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투자기업인 (주)동승그룹은 1969년 설립되어 소평물인 동대문 종합시장과 글로벌 브랜드인 JW메리어트호텔(5성급), 81홀 골프장, 해외사업(미국 대형 소평물)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업 기업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